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한글 이름 명찰'... 인권 보호 '첫발'

장성군, 장성군다문화가족협의회 제안 수용... 계절근로자 282명 전원 지원

장성군이 22일 남면지역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한글 이름 명찰 달아주기' 행사를 가졌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파종기, 수확기 등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에 큰 도움이 된다.

현재 장성지역에는 총 282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치되어 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240명으로 가장 많고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순이다.

문제는 '소통'이다. 계절근로자들의 이름이 발음하기 어렵다 보니, 현장에서 고용주와 대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곤 한다.

장성군다문화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이름 대신 '야', '어이' 등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장성군은 협의회와 논의 끝에 지역 내 모든 계절근로자에게 한글 이름 명찰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 이름은 사전에 근로자와 상의해 간결하고 발음하기 쉬운 한글명을 정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외국인근로자 존중과 건강한 농촌 공동체 조성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세심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오는 11월까지 군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2025년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생학습은 읍면별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라탄공예 ▲보자기 공예 ▲서예 ▲꽃자미스터 등 총 5개 과정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장소는 마을회관과 종합생활관 등 접근성이 뛰어난 생활 공간을 활용해 교육 참여 문턱을 낮췄다.

겸백면 덕음마을에서 진행된 '라탄공

보성군, 군민 맞춤형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

무더위 속 지속되는 배움의 열기... 생활 밀착형 교육 확대

예'와 문덕면 종합생활관의 '내 삶을 꽃피우는 보자기' 과정은 수강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현재는 문덕면에서 '라탄공예', 조성면에서는 '서예' 과정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오는 9월에는 조성면에서 '꽃자미스터 2급 자격증 과정'이 개설될 예정으로, 취미를 넘어 실용적인 자격 취득까지 연계되는 평생학습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와 수업 환경을 지속 확충해, 지역 맞춤형 평생학습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무더위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주민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야말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의 가장 큰 힘"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많은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은 교육 여건이 제한된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군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자기 계발과 여가 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군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보성/김운기 기자

고흥군, 정부합동평가 '종합 1위' 올해도 정조준

2년 연속 1위 향한 전략 본격 가동... 성과관리 체계화 나서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2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양국진 부군수 주재로 2026년(2025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대응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자리로, 지표별 담당 팀장과 실무자들이 참석해 추진 상황과 실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 행정 전반에 대해 매년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종합평가로,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정량평가와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정성평가로 구성된다.

고흥군은 정성평가 대응을 위한 맞춤형 우수사례를 발굴·점검하고, 80개 정량지표 중 신규·고난도·전년도 미달성 지표 등 약 15개 지표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해당 지표의 평가 내용과 대응 전략, 협업 방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실적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보고회를 기점으로 우수사례 발굴 원탁회의 등을 통해 부진 지표 개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합동평가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양국진 부군수는 "정부합동평가는 국가 주요 시책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지표별 목표를 구체화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하는 등 전 공직자가 목표 달성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 5월 발표된 2025년(2024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에서 역대 최초로 전남 22개 시군 중 종합 1위를 기록해 높은 행정력을 입증한 바 있다. 군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준비와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한방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꿈지락 건강배움교실' 개강

전남 합평군이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 대상 한의약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나섰다.

합평군은 23일 "한방 꿈지락 건강배움교실이 지난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다함께 돌봄센터를 비롯한 지역아동센터 9개소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천연 한약재를 활용한 한의약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아동이 전통 한의약을 쉽게 이해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은 합평군 보건소 소속 한방 공중보건과가 진행하며,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건강교육과 더불어 여름철 감염병 예방 및 위생 수칙도 함께 안내해 아동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고 있다.

합평/전광훈 기자



구례군, 예취기 안전 사용 순회교육 실시

전남 구례군은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예취기 안전 사용 순회교육'을 각 마을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4월부터 11월까지 농번기 기간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사고 발생이 잦은 예취기를 중심으로 올바른 사용법, 사고 예방 수칙,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등을 실습 중심으로 교육한다. 특히 보호안경과 무릎 보호대 등 개인 보호구 착용법을 익히고, 주요 사고 사례를 소개해 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교육에 참여한 한 농업인은 "막상 교육을 받아보니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며, "보호구 착용법과 올바른 사용법을 배울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무안군,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22일 무안버스터미널 일원에서 '작은 배려, 큰 생명! 교통문화 우리가 지켜요!'를 슬로건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무안군, 무안경찰서, 모범운전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이 협력해 진행됐으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와 바람직한 교통문화 정착을 목표로 추진됐다.

참여자들은 손팻말과 홍보물을 활용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알림과 준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보행자 우선 문화 확산 ▲안전벨트 착용 등 중요성을 강조했다.

무안군 제공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